■ '호랑이 이어 사자 새끼 희생' 광주 우치동물원 왜?

허술한 분만실 환경 '불안'
비행기 소음 등 '스트레스'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어미 맹수들이 갓 태어난 새끼를 잇달아 잡아먹는 등 주변 환경과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우치동물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아프리카산 사자 4·5년생 수·암컷이 몸무게 1㎏의 새끼 한 쌍을 낳았으나 태어난 지 8일 만인 지난 3일 어미가 새끼 두 마리를 잡아먹었다. 우치동물원에서 새끼 사자가 태어난 것은 5년 만으로, 지난 2002년에 인공 포육(哺育)으로 기른 새끼 사자도 다른 사자에게 물려 죽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엔 벵골산 호랑이 암컷 '아롱이'가 생후 40일 된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먹었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치동물원의 '산실'(産室·분만실) 환경과 주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랑이·사자 등 맹수의 경우 키울 여건이 안되면 갓 태어난 새끼를 먹어 치우는 속칭 '식자증' 증세를 보이는데, 고양이과(科) 동물은 더 심하며 주변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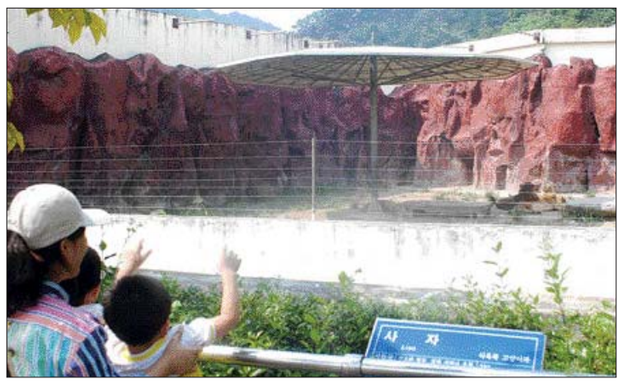
우치동물원은 ▲광산구 송정동 공군 전투비행단(서남방향 8㎞ 지점) ▲담양군 대전면 육군 포 사격장(정북방향 3.7㎞ 지점)과 가깝고 비행기 항로여서 소음피해가 심한 곳이다. 북구청의 조사 결과 우치동물원의 소음은 평일 오후 56.9~65db로, 100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사람 발 자국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맹수들에게는 높은 수치다.

우치동물원은 특히 이중삼중으로 방음처리를 해 놓은 전문 '산실'이 없어 '대물림'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새끼를 낳기 보름 전부터 맹수를 13.22㎡ 크기의 '산실'에 넣고 주변환경에 적응케 한 뒤, 전담 사육사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자연 포육을 돕고 있다.

또 자연 포육이 어려운 새끼의 경우 평균 2주 이내에 어미 곁에서 떼어 낸 뒤 인공 포육을 해야 하는데, 우치동물원 측은 한 달 이후에야 분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원 측은 초유(初乳)를 먹이는 등 면역력을 길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공 포육에 따른 먹이 등 사육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동물원 최종욱 수의사는 "동물원에서 자란 맹수의 경우 새끼 생존율이 10% 정도로 매우 낮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다음엔 인공 포육을 통해 새끼를 키워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어미 사자가 생후 8일 된 새끼 두 마리를 잡아먹은 광주 우치동물원 내 사자 우리(132.23㎡). 우치동물원은 비행기와 전차포 소음이 심한데다 전문 '산실'(産室)이 없는 등 여건이 열악, 맹수들이 새끼를 잡아먹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주는 안개에 젖어' 11일 오전 6시, 안개가 짙게 낀 나주시 성북동 도로를 차들이 미등을 켠 채 달리고 있다. 이날 광주공항은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視程距離)가 400m까지 떨어지면서 오전 8시20분 서울발 KAL 1901 등 4편의 여객기가 결항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없는 10대 겁없는 범죄행각

차량 훔쳐타고 수십차례 절도·방화
성매매 속여 채팅 男 유인 강도까지

훔친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여성을 가장해 남자들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는 등 10대들의 철없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경찰은 11일 상습적으로 차량과 금품 등을 훔친 나주 모 고등학교 3학년 P(18)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지난달 17일 이후 나주시내 사우나 등지를 돌며 27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 2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훔친 박모(45)씨의 스타렉스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농가 창고에 보관된 휘발유를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달 17일 나주시 영산대교 밑에서 이 차량을 불태웠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물파손(물품보관함) ▲절도(현금 등)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공기호부정사용(훔친 자동차 번호판 사용) ▲방화 등 무려 5개다.

광주 북부경찰도 이날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17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빼앗은 S(16)군 등 10대 청소년 1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B 채팅 사이트에 여성 명의 아이디로 '조건 만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동부경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담뱃불로 후배의 팔목을 지지고 78만원을 뺏은 K(17·광주 S중 3년)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복구되는 e메일' 공포

신정아 파문…언제·어디까지 남나 관심

우리 남편이 나 몰래 보낸 메일 내용, 알 수 있을까?

신정아 파문과 관련, 검찰이 압수한 신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미 삭제된 e메일 내용을 복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수신 기록 및 내용 등 메일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메일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메일은 내용이 PC가 아닌 대규모 포털 서버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메일을 '휴지통'에 넣고 '비우기'를 클릭하면 완전 삭제할 수 있다. 이때 삭제된 메일 내용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닷컴을 운영하는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가 메일함 휴지통에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영자가 메일 내용을 비롯해 송수신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익스프레스'등 개인 PC에 저장되는 메일은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남아 있게 된다. 보안업체 '하우리' 임형준 팀장은 "컴퓨터 포맷을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며 "개인 컴퓨터는 이 위치를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삭제한 지 1~2주 정도 되는 메일이나 데이터의 경우 비전문가라도 인터넷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얻어 쉽게 복원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습학원장이 초등생 유괴

순천서, 4천만원 요구하다 1시간만에 붙잡혀

학원 원장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주택가에서 광양 H학원 원장 신모(36)씨가 학원에 가던 이모(10·초등 4) 양을 강제로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

신씨는 이양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30분 후에 전화할 테니 현금 4천만원을 준비해놓으라"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범행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40분께 순천시 서면 구 자동차등록소 앞에서 격투 끝에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신씨는 도박 등으로 진 빚 3천만원을 갚기 위해 흉기와 테이프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양을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무각사 불전함 200여 차례 도둑질

쌍나팔

○…사찰의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시줏돈을 훔친 20대가 범행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덜미.

○…1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20)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 내 불전함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천500여만원을 훔쳤다는 것.

○…사찰 측은 불전함 도둑이 잦자 CCTV를 설치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윤씨는 2주째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들이 현장을 덮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처럼 위장.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다섯 살 때부터 광주의 한 사찰에서 자라, 내부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자물쇠를 훼손하지 않고 한번에 3만~20만원만 훔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